

# 詩集 '이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출판기념회

## 영평초등학교 이호연 교장, "筆力길러 보은하겠다"

"음악이 맛있는 삶을 격려시켜 주듯 詩를 통하여 맛있는 삶을 격려시켜 주고 삶의 의미를 깨우쳐 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현직 교장이 詩集을 발간하고 관내 교장과 문인들을 초청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포천시 영평초등학교 이호연 교장. 이 교장은 7월14일 오후3시 영평초등학교 다목적실에서 시집 '이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출판기념회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포천시 관내 교장단과 포천시의회 이호중 의장, 포천문인협회 이종희 회장을 비롯한 회원과 포천문예대학 제5기 수료생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호연 교장은 "이렇게 성대한 축하를 받아보는 것 결혼 이후 처음입니다. 가까운 것부터 먼 거리에 축하 열망으로 바쁜 일 제쳐놓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필력을 길러 보은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이호연 교장은 7월14일 오후3시 영평초등학교 다목적실에서 시집 '이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출판기념회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사진 상 이호연 교장 부부)

제3의문학 발행인 안인수 시인의 축사, 대전대학교 박정근 교수의 축사, 축하게יק 커팅, 김기주 교장의 건배제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한택문학 조영희 시인은 축사를 통해 "자기 나라말을 지키지 못한 나라는 망했다"며 "우리 스스로 우리 말을 잘 지키고 보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호연 교장

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호중 포천문인협회 회장은 "교장은 정년퇴임이 있지만 시인은 정년퇴임이 없다"며 "이호연 교장의 앞날에 큰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가 끝난 후에는 이호연 교장이 직접 시인한 시집을 축하객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한편, 이호연 교장은 광주광역시에서 출생해 광주고등학교, 광주교육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1973년4월1일 교직에 입문후 2006년9월1일 영평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했으며 월간 한택문학 시부문 당선으로 등단하고 현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韓國의 선비정신 · 108

### 나는 한 푼을 손해 보았지만, 나라로 보면 한 푼의 이익이다



리호중 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장

정홍순이 호조판서로 있을 때 깨진 동전 한 푼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을 시켜 동전을 녹여 합쳤는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모두 두 푼이었다. 어떤 사람이 이상히 여겨 물었다. "두 푼을 들여 한 푼을 만들면 손해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정홍순이 대답했다. "나는 한 푼을 손해 보았지만, 나라로 보면 한 푼의 이익이니 어찌 도망이 되지 않겠는가?"

어느 해, 그의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다. 정홍순은 딸의 혼례에 쓸 비용을 계산하다가 부인에게 물었다. "예복과 면포를 마련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소?" "8백 냥은 있어야 합니다."

"잔치 비용은 얼마나 들겠소?" "백 냥입니다."

"그럼 그때 맞추어서 주겠소." 그러나 혼인일이 되어도 예복과 면포는 도착하지 않았다. 정홍순은 몹시 다급한 얼굴로 부인에게 물었다.

"내가 오래 전에 상인에게 부탁했는데 그가 오지 않으니, 하지만 한 나라의 정승이 되어 어찌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에게 벌을 주겠소. 차라리 전에 일던 옷을 빨아 입혀 시집보내시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끝나지 않았다. 잔치를 벌이려면 음식이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정홍순은 몹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부인에게 물었다.

"상인이 또 내가 요구하는 날짜를 맞추지 못했구려. 차라리 사람을 시켜 사오는 것만 못하져 흥행에 크게 성공했다. <실크 스타킹>은 냉정시대의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아름답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소련 공산당원 니노치카가 자본주의 패라에 빠진 동지들을 소련으로 데려가기 위해 파리에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미국의 프로듀서를 만나면서 열음장 같은 그녀의 가슴도 녹기 시작하며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냉정시대에 만들어진 뮤지컬로 소재가 당시로서는 다소 파격적이기도 했다. 그레타 가르보의 원작 영화가 워낙 완성도가 높은 탓에 뮤지컬 대본은 짜임새가 부족했다는 평이지만 영화버전은 최고의 뮤지컬 배우였던 프레드 아스테어(Fred Astaire)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소중하다. 1937년에 낙마사고로 다리를 다쳐 30번 이상의 다리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다리 하나를 절단했던 콜 포터는 지팡이를 짚고 세트장에 자주 등장했다고 하는데 뮤지컬 영화 버전을 위해 새로운 곡을 쓰거나 고쳐 써 결과에 아주 만족했다고 한다. <실크 스타킹(Silk Stockings)>은 현재 국내에 DVD로 출시되어 있다.

그 사위는 아침 일찍 잠언어른 때에 들렀다. 마침 새벽부터 비가 내렸는데 정홍순은 사위에게 시가와 나막신을 주며 말했다. "너는 내 집에 돌아가서 아침을 먹도록 하라. 나는 준비한 밥이 없고 너는 이미 지어놓은 밥이 있으니 굳이 여기서 오래 기다릴 것 없다."

이 일로 사위는 잠언에게 서운한 감정을 품었다. 그리하여 사위는 2년 동안이나 처가에 가지 않았다. 사위가 찾아오지 않자 정홍순은 직접 편지를 써서 사위와 딸을 불렀다.

마지막에 처가에 온 사위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다. 딸 내외가 인사를 올리고 나자 정홍순은 두 사람을 데리고 뒤뜰로 향했다. 뒤뜰에는 조그만 집이 한 채 지어 있었는데 정원이 크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이윽고 정홍순은 남편에 미소를 띠고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옛날 내가 시집갈 때 혼수 비용을 알아보았더니 천2백냥이 든다고 하더구나. 아찌 남에게 보이기 위해 그런 큰돈을 써야 한단 말이나. 나는 그 돈으로 매운 이자를 불러 이 집을 짓고, 또 시골에 땅을 사서 해마다 수백 가마의 곡식을 수확하고 있다. 앞으로 내가 이곳에서 살도록 해라."

그제야 딸 내외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 깨달았다.

호조판서가 된 지 10년 동안 그는 꼼꼼히 나라의 재산을 챙겼다.

나라의 재물은 비록 송곳 하나도 친히 살펴 나라의 창고가 가득 찼을 것이다.

그는 정승이 된 뒤 넓은 집을 수리하였다. 그때도 그는 일당을 가지고 일꾼들과 사사건건 다투었다. 그러자 자제들이 이를 민망히 여겨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님께서 정승 자리에 계신데 한낱 천한 일꾼들과 돈을 가지고 다투시니 체통을 지키십시오."

그러자 정홍순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 나라의 정승은 한 나라의 기준이다. 내가 만일 일당을 많이 주게 되면 일꾼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도 그만큼 일당을 받을 것이니 백성들이 곤란을 겪을 것이다."

정홍순(鄭弘淳) 1720년(숙종 46)~1784년(정조 8) 본관은 동래이며 자는 의중(毅仲), 호는 호동(湖東)이다. 1745년(영조 21)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된 뒤 여러 벼슬을 거쳐 호조판서로 올랐다. 호조판서로 10년 재직하면서 재정문제에 특히 재능을 발휘하여 담대 제일의 재정관으로 명성을 날렸다.

1762년 호조판서와 예조판서를 겸하였는데 마침 장헌세자(莊獻世子)의 장의(葬儀)를 주관하면서 미세한 것까지 한 쪽씩 면서 이를 보살폈었다. 정조가 즉위한 후 앞서 세자의 장례 여부를 알고자 당시 예조판서였던 그를 부르자 그동안 간직해 두었던 것을 내어다 보였다. 정조는 가장품이 풍부하고, 예(禮)에 빠진 것이 없음을 보고는 그를 우의정에 임명하였다. 이후 좌의정에 이르렀는데 정승이 된 뒤에도 세세한 일까지 정조와 절약으로 일관하였다. 시호는 정민(貞敏)이다.

## 뮤지컬 이야기 #66

### 콜 포터(Cole Porter)의 <칸칸(Can Can, 1953)>과 <실크 스타킹(Silk Stockings, 1955)>

최근 케이블TV에 동성연애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게이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당당히 케이블을 타고 방영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도 동성연애자들의 상상수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히는 시대가 되었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비록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커밍아웃(Coming out)은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이 아직까지 곱지 않은 않다. 단지 무관심하게 지켜 볼 뿐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수이다. 윌트 격인 미국도 동성연애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르다.

최근에 많은 연예인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당당히 카메라 앞에서 시대가 되었지만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개인적인 치료로 비밀스럽게 숨겨왔다. 작사가 로렌츠 하트(Lorenz Hart, 1895~1943)는 죽기 전까지 동성애자라는 사실 때문에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야 했으며 알코올 중독에 빠져 많은 고통 속에서 생활했다. 유명한 뮤지컬 작사가로 한 시대를 풍미하며 작품 활동을 했지만 1943년 알코올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되기까지 하트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그의 동성애적 성향은 그가 작사한 많은 뮤지컬 노래들 속에 잘 녹아 있다. 반면에 콜 포터는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그보다 더 풍부한 선율을 보여주는 작곡가는 없었나. 동성연애자였던 그가 남녀 간의 사랑을 어떻게 그토록 풍부한 선율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거기

에는 아내였던 린다(Linda Lee Thomas)의 보살핌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린다는 포터보다 8살 연상이었고 포터의 동성애적 성향을 잘 알고 있었지만 1954년 죽기 전까지 포터를 보살피며 마음속 지주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지나칠 정도로 끝없는 동성연애의 탐닉과 식을 줄 모르는 남자를 향한 애정행각을 벌였지만 미국인들은 지탄을커녕 연민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주었다. 하트와 포터 모두 20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작사가와 작곡가였지만 대중적인 사랑은 그렇게 엇갈렸다.

콜 포터는 1930년대 대표작 <에니싱 고즈(Anything Goes, 1934)>를 비롯하여 <로잘리(Rosalie, 1937)> <브로드웨이 멜로디 1940(Broadway Melody Of 1940, 1939)> 등 영화 속에서도 풍부한 이미지와 기교를 보여주며 미국의 대표적인 뮤지컬 작곡가로 추앙을 받았다. 1940년대는 <키스 미 케이트(Kiss Me, Kate, 1948)>만이 성공했을 뿐 별다른 히트작을 내놓지 못했지만 그의 뮤지컬 인생의 마지막을 <칸칸(Can Can, 1953)>과 <실크 스타킹(Silk Stockings, 1955)>으로 마감하며 거장으로서의 명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두 작품 모두 비평가들로부터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콜 포터라는 이름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었지만 특별히 뮤지컬의 선구적인 작품이 아니었다는 것이 평단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두 작품 모두 포터의 특징인 잘 쓰여진 대본, 재치 있는 가사, 선율이 풍부한 노래를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칸칸(Can-Can)은 오펜바흐의

클래식 선율로 유명하게 후에 많은 영화와 뮤지컬에 사용되었고 유명한 게임보이 슈퍼마리오 랜드(Super Mario Land)에서도 칸칸이 무척 마리오의 주된 선율이었다. 콜 포터의 <칸칸>에는 관습적인 낭만적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댄스홀 여주인과 고상한 법관인 그들이며 20세기 초의 폴마르트 댄스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댄스홀의 여주인 피스타체는 세심하고 엄격한 포레스티 판사를 유혹하기 위해 도발적인 춤 칸칸을 무대에 올린다. 이상과 같이 단순한 즐거움을 가진 뮤지컬 <칸칸>은 비록 영향력 있는 작품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 뮤지컬이었다. 대 표곡이라 할 수 있는 '아이 러브 파리(I Love Paris)'에서 코러스 중 간奏에 단조에서 장조로 바뀌는 대담한 전환이 시도되고 있는데 2막 후반부의 클라이맥스를 전담하는 훌륭한 곡이며 타이틀곡인 칸칸에서 피날레로 이끌어가는 해주는 전초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다. 단조는 단음계로 만들어졌는데 보통 라로 끝나며 어둡고 우울한 느낌이 든다. 반면에 장조는 장음계이며 보통 도로 끝나고 신나면서 즐거운 느낌이 많다. 콜 포터는 단조에서 장조로의 전이를 통해 훌륭한 선율을 창조해내 왔다. 비록 평단의 호평을 받지는 못했지만 1953년 5월에 초연되어 1955년 6월까지 892회 공연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뮤지컬 <실크 스타킹(Silk Stockings)>은 1939년에 그레타 가르보(Greta Garbo)가 주연한 영화 <니노치카(Ninotchka, 1939)>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졌는데 1955년

2월에 초연되어 478회 공연을 기록했다. 비록 <칸칸>보다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1957년에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져 흥행에 크게 성공했다. <실크 스타킹>은 냉정시대의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아름답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소련 공산당원 니노치카가 자본주의 패라에 빠진 동지들을 소련으로 데려가기 위해 파리에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미국의 프로듀서를 만나면서 열음장 같은 그녀의 가슴도 녹기 시작하며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냉정시대에 만들어진 뮤지컬로 소재가 당시로서는 다소 파격적이기도 했다. 그레타 가르보의 원작 영화가 워낙 완성도가 높은 탓에 뮤지컬 대본은 짜임새가 부족했다는 평이지만 영화버전은 최고의 뮤지컬 배우였던 프레드 아스테어(Fred Astaire)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소중하다. 1937년에 낙마사고로 다리를 다쳐 30번 이상의 다리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다리 하나를 절단했던 콜 포터는 지팡이를 짚고 세트장에 자주 등장했다고 하는데 뮤지컬 영화 버전을 위해 새로운 곡을 쓰거나 고쳐 써 결과에 아주 만족했다고 한다. <실크 스타킹(Silk Stockings)>은 현재 국내에 DVD로 출시되어 있다.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 예/술/칼/럼

### 관념적 사고와 관념어

관념적 사고는 울안에 있는 돼지의 주둥이다.

글 속에서 다른 단어를 통째로 삼켜버린다. 마치 자식과 같은 힘이 있어서 주위의 언어들을 끌어 담고 그 곁에 녹여 버린다. 그래서 글 가운데에서의 관념적 사고는 군림하려는 군주와도 같다. 언제 나 관념의 문제는 선악의 개념과 죽음에 대한 원론적이며 형식적 한계에 집착한다. 관념적 사고는 정상 계도의 이탈을 허용하지 않는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틀이 무너 탄탄하며 완벽한 것이다. 아무리 망치로 두들겨도 깨트려 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대부분 빗장을 채우려는 속성이 있다. 그러므로 관념적인 사람은 도덕과 윤리적 사고의 수위(水位)가 가슴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새 물을 부으면 물이 차게 마련이다. 관념적인 사람 또한 못차림으로 말하면 개췌물 보다는 정장차림이거나 대개는 화려하지도 않다. 웬지 무

겁고 보수적이며 답답하다. 이치럼 관념적인 사람은 관념어 사용을 즐겨워한다. 관념어를 많이 쓴다고 결코 지적인은 아니다. 지식이 있어서 주위의 언어들을 끌어 담고 그 곁에 녹여 버린다. 그래서 글 가운데에서의 관념적 사고는 군림하려는 군주와도 같다. 언제 나 관념의 문제는 선악의 개념과 죽음에 대한 원론적이며 형식적 한계에 집착한다. 관념적 사고는 정상 계도의 이탈을 허용하지 않는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틀이 무너 탄탄하며 완벽한 것이다. 아무리 망치로 두들겨도 깨트려 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대부분 빗장을 채우려는 속성이 있다. 그러므로 관념적인 사람은 도덕과 윤리적 사고의 수위(水位)가 가슴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새 물을 부으면 물이 차게 마련이다. 관념적인 사람 또한 못차림으로 말하면 개췌물 보다는 정장차림이거나 대개는 화려하지도 않다. 웬지 무

ຈັත් 생각의 틀 내지는 사유적(思维的) 단정된 질서와 조소(彫琢)적이며 주지적(主知的) 경향에 치우쳐 수 있다. 만들어진 그릇과 다 된 꽃은 이미 관념이 되었기에 그렇다. 여기서 변화를 용납하지 않는 어떠한 추상도 이미 관념인 것이다.

따라서 예술적 감성에서의 관념은 어떤 사물을 해석하기 보다는 율동으로 알아야 한다. 인간관계적 이해의 너그러움은 관념의 패라다임보다는 보편적 가치관의 잣대와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서로간의 화해의 폭이 넓어지며 따라서 감상의 깊이와 높이도 자못 높아진다.

관념어의 양식은 향아리에 채워진 물과 같아서 증발되는 것 말고는 항상 고여 있다. 향아리를 깨트릴 때 다른 사고의 새로운 향아리를 구워낼 수 있는 것이다. 관념어는 말 속에 의미가 굳어진 변화를 거부하는 단단한 포피로 쌓여져 있다.

한편 시적 형상화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 언어의 나열이 아니라 예술성의 정적(靜的)과 동적(動的)의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어떤 관념에 빠지거나 매료되면 권위적 사고에 물들게 되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 상상은

더구나 시 창작에 있어서 시작 이미지(상상력)의 형상화는 흙이 반죽되어 모양을 드러낸 후 가마(窯)에 넣고 장작불을 지피듯이 처음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그려내야 함이다. 이와 같이 관념적인 시어의 잔치에는 향시 관념어가 전수성찬이다. 잘 차린 음식상은 본래 먹을 것이 없는 것과 같다. 시 속에서 관념어는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인 빛 좋은 열매다.

그러므로 시 창작에 있어서 관념어를 쓸 때는 머리된 면로의 파 리듬이어야 한다.



안익수 시인 제3의문학 발행인



### 수필가 김창웅의 <포천 이야기> (241)

#### 道色有感(도색 유감)

석전 경우(石田 耕牛)(합경도) 산림 맹호(山林 猛虎)(평안도) 춘파 투석(春波 投石)(황해도) 경중 미인(鏡中 美人)(경기도) 암하 노불(岩下 老佛)(충원도) 청풍 명월(淸風 明月)(충청도) 풍전 세류(風前 細柳)(전라도) 송죽 대절(松竹 大節)(경상도) 태조 이성계가 즉위 초에 정도전에게 팔도 사람을 평(評)해 보라고 명(命)하자 정도전은 위와 같이 대답했다한다. 학자들의 견해가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돌밭을 가는 무작한 함경도인', '산 속에 사는 사나운 호랑이', '불꽃에 물 던지기', '거울에 비친 미인', '바위 아래 있는 부처', '맑은 바람과 맑은 달빛', 바람에

하늘거리는 가는 버드나무', '소나무 대나무 같은 절개'라고 직언할 수 있다.(有譯)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의 고향이 있는 함경도를 평하지 않자 어서 말해 보라고 재촉했다. 이에 '합경도 사람들은 '니전부구(泥前歸拘)'이름이다.→진흙 밭에서 싸우는 개)'라고 대답하자 태조가 '니전부구'라는 말을 듣고 얼굴색이 붉어지자 정도전이 재빨리 '석전 경우'라고 바꿔 말하니, 비로소 태조의 기분이 누그러졌다 한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진흙 밭에서도 싸우는 개가 열린 돌밭을 가는 무작한 소가 되었으니 태조의 마음을 헤아릴만하다. 씩씩하고 용감한 평안도 사람, 잔잔한

파도의 아름다운 여물, 폭 소나기 내게 경우 밝은 경기도 사람, 순진하고 착한 강원도 사람, 정직하고 깨끗한 충청도 사람, 간드러지게 관소리 한 마당 부르는 예인(藝人) 전라도 사람, 송죽같이 의리와 절개를 중중하는 경상도 사람 등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대학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되었던 생각이 난다. ('팔도 평'이 나 '독립선언서'를 모르면 대학 1학년 불합격(?) 6.25 전쟁은 많은 도색(道色) 평(評) 명(名)을 낳았다. 북에서 내려온 월남 동포를 38선을 넘어 왔다고 하여 '38 따라지'라고 평하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하다가 한국을 평하기를 '열전'이라고 비하하기도 하였다.

## 초대 漢詩

### 綠陰芳草勝花時(녹음방초승화시)



松園 李曉種 포천한시 대표

綠樹陰濃盛夏時(녹수음농성하시)無雙美景畫難移(무쌍미경화난이) 푸른나무 무성한 나무 그늘에서, 견줄수 없는 경치 그리기 어렵구나. 閨門婦女歡蠶菜(규문부녀환사채)楊柳鶯兒善織枝(양류앵어선직지) 집안의 아낙네 나물캐며 기뻐하고, 버들속의 꼬리치는 가지에서 베를 짜는구나. 雅士書中經修業(아사서중경수업)樵翁物外吟吟詩(초옹물외인인시) 선비는 책속에서 경서를 두고, 樵翁은 세상밖에서 시를 읊고 있네. 四方恍惚如仙境(사방황홀여선경)玩賞登樓約後期(완상등루약후기) 사방이 황홀하여 선경같은데, 다락에 올라 구경하며 후일을 기약하네.